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소니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담다)

2024 NEWS LETTER OF THE DSY



2024
01~12

차례

다소니란?

사랑하는 사람. 옛말로 사랑을 의미하는 닷옴, 사랑하는 사람을 닷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대에 오며 변형이 되어 **다소니**가 된 것 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핌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 3 소개 및 안내
 - 4 인사말
 - 5 프롤로그
 - 6 다소니의 일주일
 - 7 STORY.1 다소니의 일상
 - 8 STORY2. 다소니 추억 한 장
 - 9 STORY2. 다소니 추억 한 장
 - 10 선물 같았던 그 날, 그 때
 - 11 오늘도 쌓아가는 지식 한 방울
 - 12 STORY3. 올해의 성장
 - 13 STORY3. 올해의 성장
 - 14 한 해의 마무리
 - 15 그리고 새로운 시작
 - 16 아이들의 편지
 - 17 우리들의 못 다한 추억
 - 18 우리들의 못 다한 추억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행인: 강은주

발행일: 2024.12

홈페이지: www.dasoni.kr

이메일: 0308dasoni@naver.com



다소니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합니다.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게 하고
함께 어울리며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곳”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배려와 헌신, 매일 일어나는 예측불가의 상황들과
아이들의 갈등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해결해줄
능력, 특히 선생님이란 존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도록
다소니지역센터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현황 (총 16명)	법정종사자 시설장	봉	사회복무요원	외부지원강사
	생활 복지사	사 자	환경 및 아동관리	영어(2),한글(2),한자,심리, 체육,수학,독서,장구,중국어
	1	1	2	2
				10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1	2	3	4	5	6	1	2	3
아동현황	남	6	3	—	1	1	1	—	—	—
	여	13	2	2	—	2	2	5	—	—
	계	19	2	5	—	3	3	6	—	—

인사말

강은주, 김현경



안녕하세요.

다소니지역아동센터 강은주 센터장 입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고 ‘눈이 왔으면 좋겠다!’ 재잘대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가 옴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 마을에 온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바깥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외동이라는 마을을 겪어보니 우리 아이들이 뛰놀기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이 마을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지만 부딪히고 함께 나아가다보니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작고 소중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다소니지역아동센터가 그린벨트가 되어줄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동료와 경험” 저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야 할 공부가 많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막상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곁을 멀리서 지켜주신 덕분에

다소니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음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일 년 동안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꺼이 동행해주길 행복하게 기원합니다.

다소니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소식지를 읽는 모든 여러분,
 누구의 '다소니'가 되셨나요?
 또 누구의 '다소니'가 되고 싶은가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다소니의 다소니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소니의 일주일 (행사 및 프로그램)

월	요일	행사 및 프로그램명	주관 및 지원처명
매월	월	맘앤하트	시보조금 & 재능기부
		기초학습 수학	시보조금
	화	하늘천따지(한자)	시보조금 & 재능기부
	수	똑똑, 해력아! 문(文) 좀 당겨줘! (한 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공모사업
	목	기초학습 만점왕(수학)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공모사업
	금	슬기로운 체육교실	시보조금
	토	똑똑, 해력아! 문(文) 좀 당겨줘! (두 반)	삼성꿈장학재단
행 사 시	일	똑똑, 해력아! 문(文) 좀 당겨줘! (주제반)	삼성꿈장학재단
		특별 프로그램 &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시보조금 & 후원금

* 매월진행

● 정규수업 :

맘앤하트 / 국어(신문읽기, 문해력 공부) / 수학 / 체육 / 한자

● 특별 프로그램: 영화, 뮤지컬, 놀이공원, 1박2일 캠프, 직업체험관, 물놀이



STORY1. 다소니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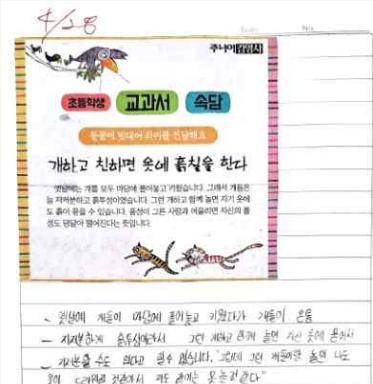
매일을 꾸준하게! '성실함과 규칙성'

매일과 꾸준함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다소니의 올해 목표는 아이들에게 매일과 꾸준함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생활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앉아서 성실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어떤 자양분으로 자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표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 시간에는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다소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문 읽기입니다. 학년이 오르고 사고력은 요구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연습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문단을 요약해보기도 하고,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을 적어보기도 해요.

둘째, 한자 공부입니다. 한자 공부는 생소할까요? 그렇지만 책 속에,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한자어인 것은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글자들이 신기한지 하루에 한 개는 꼭 알고 가기!를 목표로 잡았다고 하네요.

셋째, 책 읽기입니다. 책은 매일 저녁을 먹고 난 후 15분에서 30분 동안 이루어져요. 매일매일 책읽기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기도 하고, 응기종기 모여서 내가 고른 책을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해요.



'우리의 특별한 시간' 한 달에 한 번 기다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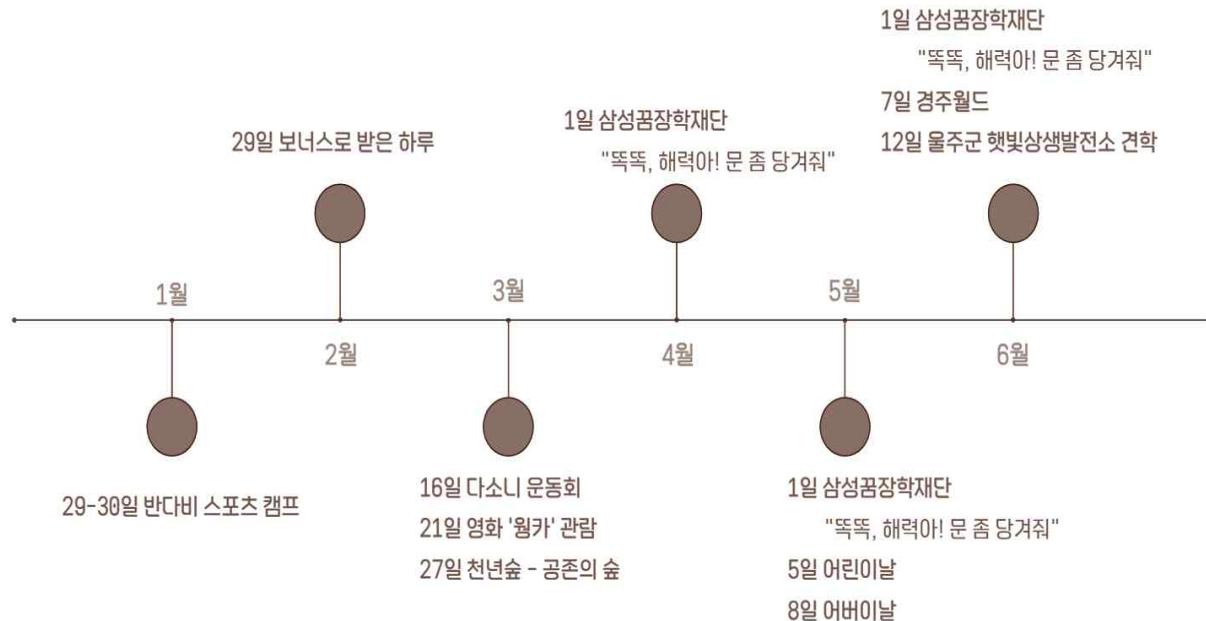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은 재밌는 것들을 해요. **중국문화**를 배우고, **숲체험**을 가고, **우리가락을 노래**하는 시간도 가져요. 이 모든 것들은 경주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중입니다. **중국문화**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옆인 중국은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 알 수 있게 됐고요. **숲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을 짧지만 만끽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락을 노래**하면서 아이들은 디문화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을 극복하고 한국 전통 노래와 민요, 사물놀이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일상생활에서의 나비효과가 조금 더 알차길 바라면서 늘 그러하듯 꾸준하게 연습합니다.



STORY2. 다소니 추억 한 장

우리의 일 년 행사 연대표



STORY2. 다소니 추억 한 장



1일 삼성꿈장학재단

"똑똑, 해력아! 문 좀 당겨줘"

7-8일 천문학 캠프

14일 강동워터파크

서라벌도시가스 안전요원

1일 삼성꿈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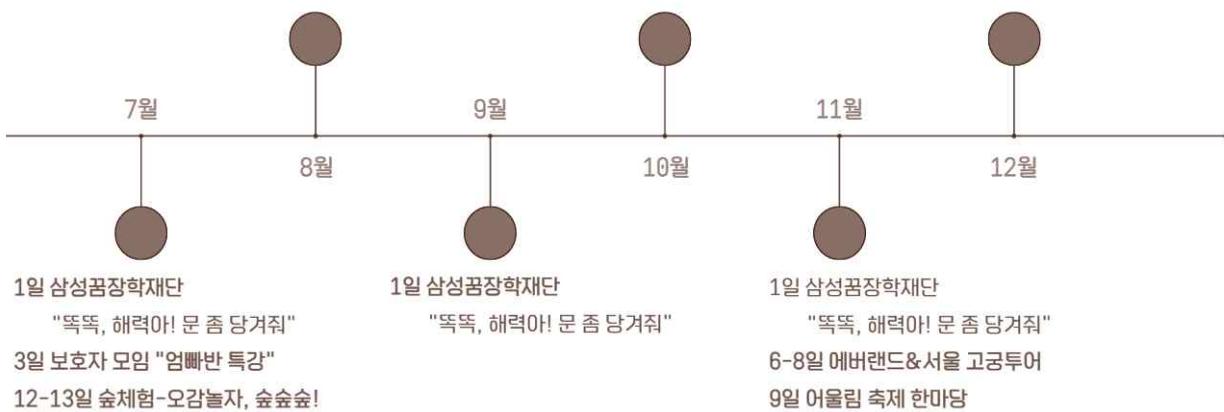
"똑똑, 해력아! 문 좀 당겨줘"

9일 경주시 나라사랑 말하기 대회

1일 삼성꿈장학재단

"똑똑, 해력아! 문 좀 당겨줘"

25일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그 날, 그 때

1월

모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다소니지역아동센터를 찾아주셨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궁금하기도 했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또 다른 곳이 기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궁금해 하셨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모화초등학교’ 와 ‘다소니지역아동센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5월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에서 다소니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직은 어린이라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다 이런 꿈과 깜짝 놀랄만한 즐거움을 선물해주셔서 조금 더 특별한 하루로 마무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라며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9월

서리벌도시가스에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미디어 매체 발전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며 전자칠판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에너지의 발전과 생성, 환경보호에 대해서 한걸음 더 앞서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에너지와 함께
아이들이 걸어나갈 앞으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응원의 손길에 동참해주세요!



9월

추석을 맞이해서 최덕규 경상북도의원님께서 다소니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와 함께 외동읍과 다소니지역아동센터가 고민하는 문제를 경청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동그랗게 빛나던 보름달처럼
‘다소니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마음도
환히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쌩아가는 지식 한 방울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다소니 아이들은 요즘 한 번 해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늘 들어보기만 했던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다소니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찾아가보자! 결심했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다니!!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서울 경복궁, 청와대, 공주국립박물관과 마성의 에버랜드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추억으로 살아가나요?”

아이들은 이 순간을 매일 기다렸다고 해요. 물론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같지는 않았을 것이고 좋은 부분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처음이지만 그 덕분에 이 2박 3일이 무척이나 소중했고, 배울 점도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겠죠. 푸바오를 통해 판다를 처음 알고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하길 소망하던 아이들. 푸바오는 우리 곁에 없지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은 마음속에 남아 있겠구나’ 깨달은 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십년은 긴 마리톤을 달려갈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는 아이들에게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겠지? 이번 여행은 정말 최고였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도 어렵던 수학 문제를 풀 용기를 얻고, 사회책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 내가 갔던 곳인데!”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STORY3. 올해의 성장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으로 새로운 대회의 성공적인 도전을 기록합니다.

경주시 초등학교 제 2회 나라사랑 말하기 대회

심성꿈장학재단을 통해서 기초학습과 문해력 시업에 대한 도움을 얻은지 벌써 3년째,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 일명 ‘낫 놓고 기억(ㄱ)자도 모르던’ 그 시절은 이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따라간다기 보다 쫓아가는 것에 급급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다소나는 늘 고민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문맹인 것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했어요.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열심히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커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 기대에 천천히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명의 친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무려 다섯 명의 친구가 나라사랑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스스로 쓴 글로요! 저희는 그저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라나봐요.

“주제” 내가 생각하는 나라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모희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입니다. 사실, 이전에 나라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수업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면서 나라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사계절이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깐 사계절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계절마다의 특장이 다양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봄에는 벚꽃, 민들레 꽃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수 있고 바다나 수영장을 신나게 갈수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져 예쁜 꽃경을 볼수 있고 날씨가 춥지않고 덥지도 않아서 야외활동하기에 적당한 날씨입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하지만 눈이 내리서 재밌게 눈싸움을 할수있고, 밤에 아침에는 빛으면 띠는 데에서 쉽게 잠에 빠질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원래 봄에는 예쁜 민들레꽃이랑 벚꽃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었지만 이제 꽃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닷가 가면 물은 비단을 만난에서 신나게 수영 할수 있었는데 더진 뒀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물은 비단을 보기 어려워 진짜 같습니다. 여름이랑 봄은 아닌 다른 계절들도 쓰레기 때문에 피리 위에 있는 기 같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져 예쁜 꽃경을 볼수 있었는데 이런 쓰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막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때 까지 저는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 히고 그 아름다움을 점점 잊어가는 요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가 실천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보전하기 위해 풀로깅 활동을 하겠습니다. 풀로깅이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풀로깅 활동을 하며 버려진 쓰레기들 주워드로써 매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항상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쓰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도록 아이비스 양아서 겨울이 재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어가 자신이 생각해도 서툰 부분이 있다며 마음을 쓰던 한 아이의 글이랍니다.

간단한 맞춤법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틀려서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한 친구예요.

까마귀가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목이 마른 까마귀가 물을 마시기 위해 돌을 찾아 나서듯, 우리 다소니에는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세요!

또 다른 글을 쓴 이 친구 역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친구였지만 그걸 말로 풀어내기에는 어려웠는지 항상 내 생각을 덧붙여야 하는 글이라면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끝도 없이 이걸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던 친구였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들만이 내가 아는 것이라 고집하던 그 마음이 이 아이를 성장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꼭 100점을 맞아야만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100점을 맞게 되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그저 그 순간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는 물음에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이런 것들도 있단다!”라고 밀해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곁에 계셔서 다소나는 오늘도 진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며, 어려운 이를 돋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후원자님처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모교 초등학교 세학중인 6학년 우나경입니다. 제가 학교 국어시간에 ‘우리나라 땅을 사랑합시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 언어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글을 읽어 보고 난 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글을 읽어 보니 저도 사람들이 한글을 잘 쓰지 않고 외국어와 비슷한 신조어 등 다른 말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글들이랑 글을 때때로 신조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이를 사용할수록 우리나라 언어를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는 우리나라 전국을 쓰려고 했지만 습관이 유성으로 편처럼 생략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말해보자면 과거에 대한민국이 되기 전 조선시대에는 한글을 대신 한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한자를 쓰면서 생활했었는데 상반들은 한자를 사용할 줄 알았지만 대다수의 평민들은 한자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백성을 허隋에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는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인죠. 저는 선조께서 한자와 한글을 둘다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운다면서 유익하는데 한자를 허隋에게 외쳤을 때는 우리가 한글을 쓰기엔 옛 글자라 그런건지 저예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 사람들이 한자를 왜 어려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자와 한글을 둘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 우리나라 언어가 가장 쉽고 좋은 말이라는 말이 되었고 지금 이 대회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게 된 것인죠 저는 대한민국에 살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곳곳에서 한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인 한글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선파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흥미로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제가 설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마을외국어와 비슷한 신조어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고전 우리말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교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우나경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이번 2024년 모두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이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경주에서 보기 힘든 눈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눈썰매를 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재밌었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바로 ‘눈사람 만들기’ 와 ‘눈싸움’** 을 꼽네요.

실면서 눈을 처음 본다는 우리 다소나는 여기에만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느냐며 천사 같은 어린이의 모습을 마구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며 하얀 눈 밭에서 마음껏 뛰놀고 웃으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이번 해는 어떠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한 날을 꿈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같은 추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새로운 시작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 형아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1학년에 들어왔던 새내기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음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냥 아이 같았던 지금도 여전히 아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함께 동고동락 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좋을 때나 화날 때, 슬플 때, 기쁜 순간까지도 선생님을 외치던이 아이들을 보면 마치 나의 자녀를 6명 졸업 시키는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우당탕탕 성장기를 마치면서 날카롭게 서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더 먼 아이들에게 어떤 응원을 보내주어야 할지 고민이 더욱 되는 순간입니다. 올해의 사진을 정리하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또 선생님들과 다소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지금입니다.

앞으로 멋지게 새 출발할 아이들에게 응원과 관심,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소니의 새로운 소식

소식 첫 번째.다소니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인원에 변화가 생겼어요!

19명 → 25명 으로 새롭게 넓어지는 다소니는 이제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다양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와도 되고요. 그만큼 더 오래 다소니지역아동센터를 열 예정이에요!

소식 두 번째.다소니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많아진 아이들을 더 섬세하게 그리고 즐겁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요.

☞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의 편지

초록우산 님들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수원 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세요!



초록우산 감사합니다
다 그리고 한 수원 님
자력도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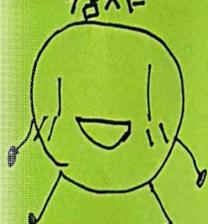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
니다



초록우산 감사합니다.
앞으로 레이버디 나무
입니다



후원자님 저희를
응원주시 주시고
덕분에 더 벌드
가기되어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를 찾았지
개구리 감사합니다
덕분에 알뜰하게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네 행복하세요



"HAPPY"

우리들의 못 다한 추억



우리들의 못 다한 추억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꿈장학재단



사랑의 열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수력원자력

- | | | |
|-----------------|--------------|---------------|
| -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 - (주)한전케이피에스 | - 원자력정비기술센터 |
| -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 월성3사업소 | - 한국지역아동센터협회 |
| - 이랜드재단 | - 대옥영농조합법인 | - 국민연금공단경주지사 |
| - 이랜드월드 | - 서라벌도시가스 |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후원의 순길로 도움을 주신 분 (12월말 기준)

김영호	장용석	김일중	유정길	오세정	김정일	김성준	오진영
정호준	김준태	김원구	이윤재	유현경	김재천	안효용	배순길
백영내	이종원	김대영	오영섭	정문섭	홍성원	윤찬우	김언량
김혜미	김제하	이은경	김은미	이성주	박성진	이선영	김현경
서정훈	인현진	이애리	양진숙	서주형	안희경	김은재	김윤수
왕계	남연서	강은실	김병곤	이성례	남상준	박후옥	윤병분
조정호	김병학	김영희	김민정	이기훈	이정미	정환오	

(주)우성테크놀 (주)씨테크씨엔피 (주)동우씨엠 (주)영광모시총각 농업회사법인 (주)대정공업

(주)성보개발

(주)창진산업

(주)하이퍼박스

(주)명일건설

정기후원CMS가입신청서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후원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프로그램 지원 및 센터 운영 전반에 사용됨을 알고, 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후원금액		결재일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정보통신(주)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 요청 응답 2.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서명		
귀한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후원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후원금)					

함께 할 다소니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월 1만원,

하루 320원이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체험하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께 하시게 됩니다.

농협은행 계좌번호 : 351-1073-0792-93 예금주명 : 다소니지역아동센터

후원문의

010-6292-6559

010-4479-9262